



7시간

관객과 함께 '권력자의 책임과 의무' 생각하는 시간 퍼포먼스 작가 김광철 광주·미국·브라질서 개인전

주제 '로맨틱 메터리얼 : 7시간'

오늘 대인시장·25일 문화전당 앞

여전히 의미이다.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국가 최고 책임자는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광주 출신의 퍼포먼스 작가 김광철씨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22일부터 3개월 동안 국내·외에서 다섯 번째 퍼포먼스아트 개인전을 진행한다.

전체적인 전시는 관통하는 소재는 지난해 일어난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이다. 세월호 참사를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전시 주제는 '로맨틱 메터리얼 : 7시간 (Romantic Material : 7Hours)'로, 퍼포먼스는 최소 10개에서 많게는 15개 공간에서 1주일에 1회씩 펼쳐지게 된다. "로맨틱 메터리얼은 물질적인 것들이 갖고 있는 감정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작가의 설명이다.

첫 퍼포먼스 장소는 22일 오후 6시 광주 대인예술시장 내 파라다이스303이다. 이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분수대(25일 오후 6시), 광주비엔날레 라프레스코 레스토랑(31일 오후 7시)에서 퍼포먼스가 이어진다. 4차 퍼포먼스는 8월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5차는 브라질 쿠리치바에서 펼쳐진다. 김 작가는 올해 쿠리치바 비엔날레에 초대 받았다.

나머지 작품발표 장소는 공간 제공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작가는 "대통령은 학생들이 죽어 갈 때, 그 7시간 동안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사적인 부분은 관심이 없다"며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관객들과 함께 사유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철 작가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주제로 선보인 금남로 거릴라 퍼포먼스.

<김광철 작가 제공>

이번 전시는 작가가 직접 장소를 찾아가면서 관객들에게 작품을 보여주는 형식이다. 관객과 작가가 우연한 기회에 자연스럽게 만나 특정 문제에 대해 사유해보자는 취지다.

장소의 특성에 따라 퍼포먼스는 다르게 펼쳐진다. 또 퍼포먼스 때마다 초 단위까지 시간을 체크해 최종적으로는 모든 작품이 진행된 시간의 합이 7시간이 됐을 때 마무리된다. 작가는 모든 퍼포먼스를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하고, 이를 다시 관객과 소통하는 자료로 남기게 된다.

이번 기획은 비영리예술법인 글로벌메이킹아트네트워크와 정인서 서구문화원장이 공동기획했고, 이진기씨와 김태상씨가 사진을, 백중록씨와 미디어컨텐츠컴퍼니 '잇다'가 촬영을 맡는다.

"이번 작업에는 2가지 코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이나 의무에 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표현에 관한 것입니다. 퍼포먼스라는 장르를 통해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문화도시 광주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유입니다. 예술도 사유가 없다면 상업화에 물들게 됩니다. 퍼포먼스는 친절하지도 않고, 불친절하지도 않습니다. 사유의 시간을 줄 수 있는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작가는 앞서 4개월 동안 3대륙 12개국을 돌면서 국제적인 예술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김광철 아트네트워크 투어'를 진행하기도 했다. 2년 전부터 자비를 모아 진행한 이 프로젝트는 핀란드 탐페레를 시작으로 영국 런던에서 마무리됐다. 최종적

으로 유럽 6개국, 아시아 4개국, 북미 2개국을 돌았다.

"전 세계적으로 예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서 진행한 기획이었습니다. 나름의 성과가 있었고, 향후에도 이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것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인전은 퍼포먼스라는 장르 자체가 가진 즐거움 보다는 같은 공간에서 많은 생각들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편하게 요청해주셨으면 합니다."

김 작가는 전남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광주국제미디어퍼포먼스아트페스티벌 예술감독,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 국제퍼포먼스 프로그램 디렉터 등을 역임했다. 문의 010-9432-886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명품 어린이 뮤지컬 '고추장 떡볶이' 공연

광주은행 메세나 나눔행사
8월 13~15일 본점 대강당
무료공연... 선착순 신청

명품 어린이 뮤지컬을 만난다. 광주은행(은행장 김현)은 다음달 13일부터 15일까지(13~14일 오후 2:5시, 15일 오전 11시·오후 3시) 광주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어린이 뮤지컬 '고추장 떡볶이' 무료 공연행사를 갖는다. 광주은행이 '제1회 메세나 나눔 행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공연이다.

'고추장 떡볶이'는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의 원작 팀으로 알려진 독일 그리스 극장의 '케첩으로 만든 스파게티'를 극단 학전의 김민기 대표가 한국식으로 변안·연출한 작품이다.

'고추장 떡볶이'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며칠 동안 단둘이 지내게 된 비룡, 백호 형제가 엄마와 겪는 좌충우돌 이야기다.

지난 2008년 초연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2008년 대한민국 연극대상 아동청소년연극상을 받았다.

지난 21일부터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에서 선착순으로 관람 신청을 받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메세나 활동의 일환으로 '고추장 떡볶이' 어린이 뮤지컬 행사를 기획했다"면서 "높은 완성도와 재미로 대륙극장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명품 공연인 만큼, 여름방학을 맞이한 많은 지역 어린이들이 공연을 관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정기기자 redpla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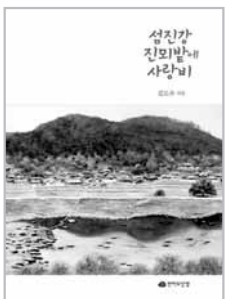
김도수 산문집 '섬진강 진땀밭에 사랑비' 펴내

'고향을 정글정글하게 사랑하는 사람' 김도수 시인이 산문집 '섬진강 진땀밭에 사랑비'를 냈다.

첫 산문집 '섬진강 푸른물에 징검다리'를 펴낸 지 10여 년 만에 발간한 이번 책은 첫 책에서 못 다한 마을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임실 덕치면 진땀마을이 텃자리인 그 고향을 잊고 사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낙원, 혹은 되찾아야 할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잔잔하게 풀어낸다. 그에게 고향의 과거와 현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꿈보따리'인 셈이다.

모두 66편이 실린 글들은 하나같이 고향이라는 키워드에 수렴된다. 저자에게 '진땀 오리갈'은 부모에 대한 그리움의 대상이다. 고향마을 앞 고추밭



한 귀퉁이에 세워진 '사랑비'는 세상의 유일한 기념비다.

'월곡양반 월곡대/손발 톱속에 깬 흙 / 마당에 뿌려져/ 일곱 자식 밟고 살았네'

'사랑비'는 부모의 희생에 대한 헌사이자, 부모의 공을 잊고 사는 이 땅의 모든 자식들을 향한 무언의 질타이기도 하다.

한편 출판기념회가 오는 25일 오전 11시 전북 임실면 덕치면(진땀마을)에서 열린다. 문의 010-3638-3247.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2015 메이 플라워 버스킹 페스티벌' 참가자 모집

5·18기념재단 26일까지

5·18기념재단(이사장 차명석)은 오는 26일까지 버스킹 뮤직 축제 '2015 메이 플라워 버스킹 페스티벌(2015 May Flower Busking Festival)'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8월14~1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5·18기념재단이 주최하고, 축제기획 전문가 장용석씨가 총감독을 맡았다.

시민과 함께 1980년 '오월 정신'을 다양한 음악 장르로 풀어낼 예정이다.

참가 뮤지션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리메이크한 작품 1곡(필수)과 자유곡 2~3곡 등으로 자신의 무대를 20~30분 정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축제를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노래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새롭게 해석해 보자는 의도다.

축제에 참여할 뮤지션은 5·18기념재단

홈페이지(http://www.518.org)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완주연주 영상과 뮤지션 사진 등을 함께 접수하면 된다.

5·18기념재단은 올해 첫 행사를 시작으로 버스킹 페스티벌 5·18정신과 버스킹 뮤직이 어우러지는 문화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문의 062-360-052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우리가 꿈꾸는 세상
서남권의 중심호텔

목포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국내 외·귀빈과 V.V.VIP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뤄내어 서남해안 관광산업과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평화광장과 영산강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탁트인 전망과 내집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최신시설과 고급인테리어로 새롭게 탄생한 웨딩홀! 여유로운 시간, 하루 한팀만 예약!
		웨딩 및 피로연 가족모임 각종 연회 세미나 들뜬치 등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SHANGRIA BIACH TOURIST HOTEL
530-390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79(상동)
예약문의 (061)285-0100